

# 냄새나는 개천

정 훈 / 문성고등학교 2학년3반

나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친하게 지내던 몇몇 친구들과 변두리에서 자취를 하며 학교에 다니고 있다. 자취생활에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생기지만 그중 하나가 구석진 자취방에 돌아온 친구녀석들의 지독한 발냄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지독한 것은 주인집 마루를 돌아 대문앞을 나설 때마다 골속까지 파고 드는 집앞 개천의 오물냄새다.

대문을 나설 때마다 뱉어내는 침속에는 지저분한 개천에 대한 욕보다는 이곳에서 살아야 하는 나의 형편에 대한 원망같은 것이 섞여있다. 하지만 언젠가는 성공해서 나를 강하게 해준 이 빈곤에 감사할 날이 있겠지 하면서 하루 하루를 보냈다.

언젠가 도서관에서 밤늦게 공부하다가 쏟아지는 졸음때문에 자취방에 돌아오는 길이었다. 저만치 우리방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에 시커멓게 굶은 그림자가 그려져있는 것을 보고는 코를 막고 걸음을 빨리했다. 개천둑 때문에 생기는 그 그림자가 가까워졌다면 또 지독한 냄새가 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주인집 마루를 돌아설 때까지 멈춘 숨을 참지 못하면 또다시 그 지독한 냄새를 들이마시기 십상인 것이다. 간신히 멈춘 숨이 거의 참을 수 없을때쯤 되서야 길모퉁이를 돌아섰다. 바로 그때 저쪽 어둠속에서 한 아주머니가 뭔가를 잔뜩 들고와서는 개천에 내던지는 모습이 보였다. 그러나 내가 신경쓸 바가 아니라는 생각에 그냥 들어왔다.

좁은 방안에는 친구녀석들이 먼저와서 라디오를 듣고 있었다.

“크. 이녀석들 / 또 발 안씻었구나?”

친구들을 떠밀어서 방에서 내보내고 개어둔 이불더미에 몸을 기대었다.

“너희들 발씻은 물이 저 개천에 흘려드니까 냄새가 지독한 것 같다.”

잠시후 친구 하나가 물었다.

“저 윗동네에 적당한 방이 나왔다는데 이번에 그곳으로 옮기는게 어떻겠니? 난 저 냄새 때문에 여기서 못살겠다.”

난 대답하지 못했다. 그리고 들어오면서 봤던 그 아주머니를 떠올렸다. 그리고 내던져진게 뭔지 괜히 궁금해졌다.

“잠깐 나갔다가 올게”

친구들에게 말하고는 운동화를 끌며 대문을 나와서 아까 아주머니가 서있던 곳으로 가보았다. 고개를 내밀어 살펴보았더니 썩는 냄새와 함께 부패한 채소찌꺼기가 보였다. 그 아주머니가 한 일이 짐작이 갔다. 방에 들어와 드러누웠다. 밖에서는 친구들이 발씻는 소리가 들리고 난 그 아주머니가 한 일이 나쁜 일인지 생각했다. 이곳엔 청소차가 오지도 않을 뿐더러 어디 한군데 오물을 버릴만한 장소도 없다. 그렇다고 이곳 사람들이 돈을 주고 청소원을

고용할 수는 더욱 없는 것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런 이야기가 생각났다.

사람들이 자주 지나다니는 산길에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길 한가운데 커다란 돌이 하나 놓여 있었다. 지나는 사람들은 그 돌을 보고는 저마다 발길을 툭툭 차며 이런 말을 내뱉고 그냥 지나가버렸다.

“어떤 녀석이 길에다 이런걸 갖다놓은거야?”

그러나 누구하나 그 돌을 길에서 내오는 사람은 없었다. 날이 어두어지고 그때 한 농부가 오고 있었다. 그 농부는 온종일 들에서 일을 하고난 후라서 녹초가 되어 있었다. 터벅터벅 지게를 지고 걸어가던 농부가 바로 그 돌에 넘어질 뻔 했다. 그러나 농부는 다른 사람들처럼 불평만 늘어놓고 가버리지 않았다. 그 농부는 어두운 밤길에 누가 저 돌에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끽끔대며 커다란 그돌을 길밖으로 옮겼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돌이 놓여 있던 자리엔 돈가방이 있었다. 그리고 그 가방 안에는 ‘이 돈은 남을 위해 이 돌을 치우는 고마운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내용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

만일 그 아주머니가 생활이 어렵다고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면 그 지친 농부도 당연히 그냥 지나갔어야 했을 것이다. 그 농부가 지친 몸으로도 돌을 옮겼던 것은 남을 위한다는 순수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 아주머니의 생활이 어려운 것처럼 그 농부 또한 지쳐있었다. 만일 아주머니가 좀 더 남을 위하여는 마음을 가졌다면 그런 일을 하진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 그 아주머니를 말리지 못한 나 또한 정당하게 볼 수 없었다. 나는 항상 착하다는 말을 들으며 살고 싶어했고 악하지 않은 사람은 그릇된 행실을 하지 않지만 착한 사람은 그릇된 행실을 하는 사람을 설득한다고 배웠다. 그렇다면 나의 행동은 옳바르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도 우리는 이런 환경이 싫다는 이유로 이사할 궁리만을 했던 것이다.

근래에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은 급속도로 발달하는 과학지식에 그로 인해 우리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는 지혜의 발전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한번쯤 낮익은 환경을 잃어가는 여러 생물들의 처지를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이러한 문제는 바로 우리 인간의 생존과도 직결된 것이다. 인류는 지구의 환경과 그 성장을 같이해왔다. 지구는 100만년이 넘도록 지구상의 모든 환경과 존재해왔지만 이런 지구에 인간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얼마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동안 인간이 바꿔놓은 지구의 환경은 실로 엄청나다. 우리는 지금도 날로 발달하는 과학지식을 습득하기에 힘쓰고 있지만 그로 인한 환경오염을 해결하려는 지혜를 얻으려는 사람은 드물다. 만일 인간이 좀 더 현명해진다면 우리의 환경은 지금까지 인류가 변화시킨 속도보다 더 급속도로 변화할 것이다. 그리고 날로 발전하는 과학문명은 인간의 이익을 추구하는 동시에 인간에게 그러한 지혜도 제공하리라 믿는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야기속의 농부처럼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잠시후 친구가 되물었을 때 “관뒤, 이사할 생각만 말고 청소할 생각을 해봐” 하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